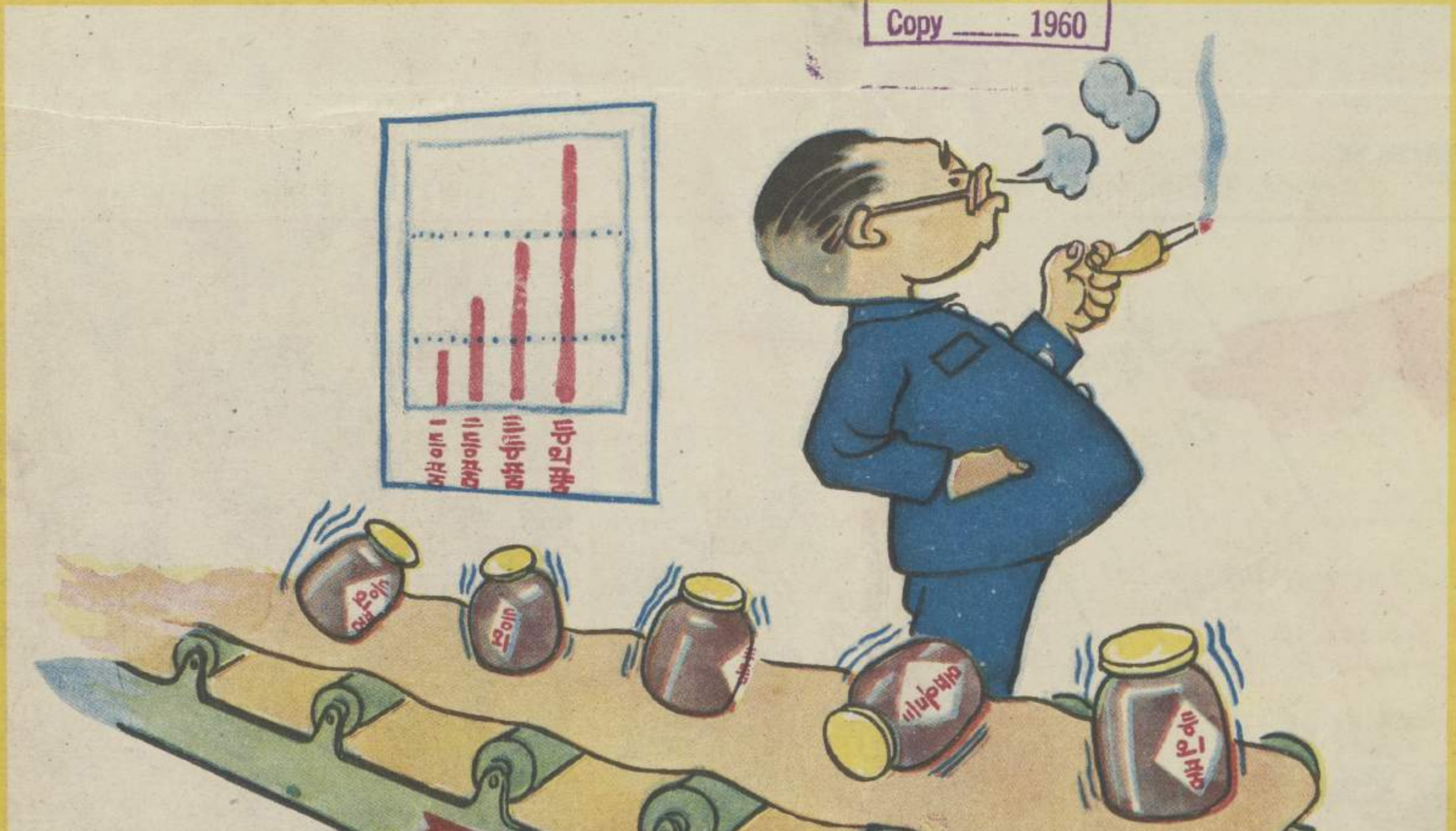
화살
1959년 (100) 3월호

95
9d 8d

질에 대한《관 심》

—왜 찬맛이 이 모양이요?

3 - AUG - 9
Copy ____ 1960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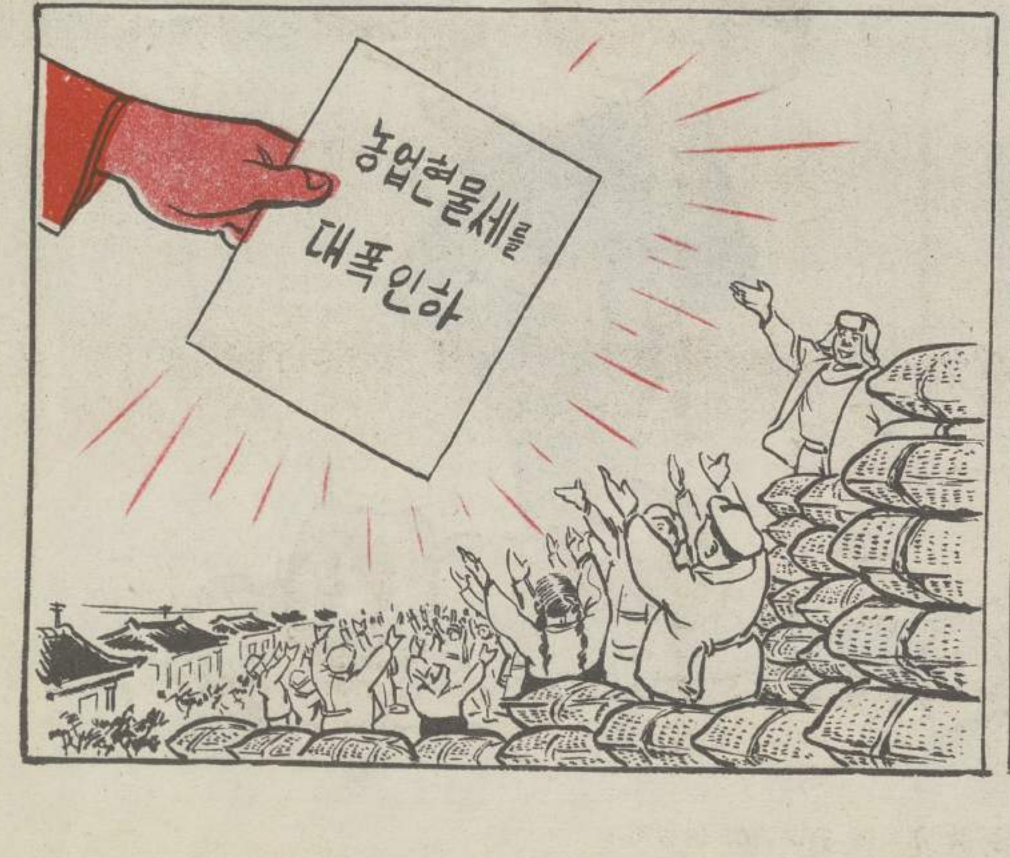
—맛은 좀 없지만 팔리기야 하겠지…

자래우는 예산

말리우는 예산

백 인균 그림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기 때문에



침략자가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홍 종호 그림

잊어서는 안될 것을 잊어버렸다

유 함림

개천 탄광의 도천 사택 마을에는 700 여호의 사택을 지을 계획이고 현재 3백 여호의 집이 들어 앉아 있다. 이 3백 여호에 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매일 같이 모여 드는 한 지'점이 있으니 그건 대체 어데겠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사택 마을 주위에 담장이라도 둘려 있고 그 어데에 출입문이 한 곳 있어서 그리로 래왕하는 거나 아닌가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사택 마을 지도를 펴 놓고 그 중심 지'점을 찾아 내려고 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3백 여호가 사는 이 사택 마을에는 단 하나의 우물 밖에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별 도리 없이 그리로 모여 들어 장사진을 치고 늘어 선 길다란 줄 끝에 서서 한가로히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개천 탄광에서는 이 마을에 15개의 우물을 파려면 작년도 계획을 단 하나만 실행하고 만 것이다. 작년 일은 기왕지사라 하고, 금년에라도 서둘러서 팠으면 좋을텐만,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다.

《그만 깜박 잊어 버리고 예산을 조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백 여호의 사람들이 하루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 비상한 불편에 대하여 깜박 잊어 버리시는 지도 일'군들은 그래도 토론을 하라면 자기들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신다. 매일 같이 코를 맞대고 한 일터에서 일하며 매일 같이 우물을 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동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깜박 잊어 버리시는 사람들이 인민을 잊지 않겠노라고 천백번 맹세한대도 그 입에 발린 말이 믿업지 않을 것이 아닌가?

정신 없는 사람

탄광에서는 갱내 로동을 끝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쯤 누구나 아는 일이다. 개천 탄광 지도 일'군들도 물론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서재'골 갱에도 목욕탕을 하나 지어 놓았다.

그런데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갱내에서 나오는 탄부들이 목욕을 하려면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한꺼번에 다섯 명 이상은 들어 갈 수 없는 극히 조꼬만한 목욕탕이였기 때문이다.

탄부들이 새로 목욕탕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성에서는 예산을 주어서 작년 3월에는 서재'골 갱의 탄부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충분히 리용할만 한 목욕탕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꽃피는 봄도 지나고 개울에서 멱감을 수 있는 여름도 지났다. 단풍 지는 가을이 지나고 눈 내리는 겨울이 닥쳐 왔지만 목욕탕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해가 바뀌여 금년 2월에야 건축이 끝났는데 2월 하순 어느날 이 새로 지은 목욕탕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진기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석탄으로 얼굴이 얼룩얼룩해진 탄부 한 명이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들어서며 물었다.

《어데에 옷을 벗으랍니까?》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던 방안의 사람이 대답한다.

《동무, 무슨 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소? 여기가 어데기에 그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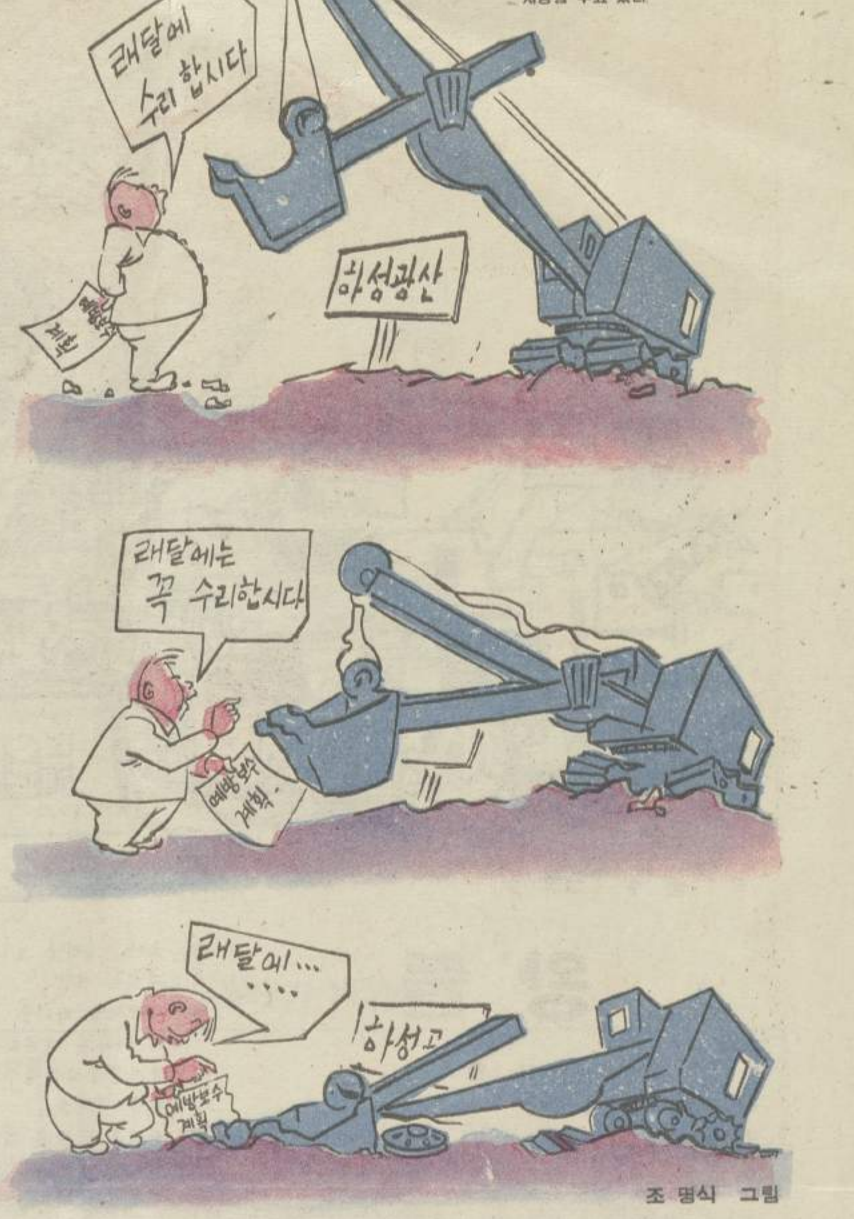
《난 예가 목욕탕인 줄만 알았는데…》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들어 오던 탄부는 방안을 둘러 보면서 그제야 눈이 둥글해졌다.

벌려벌려 오다가, 그리고 1년이나 걸리여 지어 놓은 목욕탕을 개천 탄광 지도 일'군들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욕탕으로 수건을 들고 들어 가는 사람이 정신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으로 사무 책상을 들고 들어 온 사람이 정신 나갔는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일 같다.

철광석 생산이 왜 굼뜬가?

하성 광산에서는 굴착기를 비롯한 생산 설비들의 예방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고 기계를 혹사한 결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직장장님 회의마다 웨쳐대기를
창의고안 합리화가 부족하다고
자재 로력 더 많이 절약하라고
청산류수 열변으로 잘 하신다네

그렇지만 머리 속에 보수성 있어
로동자의 좋은 의견 하루도 안가
에누리도 이만저만 곡살이라네
《우'사람이 하란대로 일만 하라》고

창의고안 내놓으면 깔아뭉개고
로력 절약 합리화는 때가 이르고
설비 개조 제의하면 자금 없다고
펄펄 뛰는 꼬락서니 가관이라네.

언제인가 상부에서 지도 왔다네
공명심과 출세욕이 가득한 그는
문서책과 수첩장을 뒤번지면서
지도원께 자랑을 늘여 놓았네

창의고안 발기수는 오백 이십건
생산에서 로력 절약 이백 오십건
자재 절약 설비 개조 백여건이라.
그럴듯이 엮어가며 력설했다네

지도원은 만족하여 칭찬하면서
창의고안 합리화를 구경하자네.
어이 하랴 울렁울렁 가슴 떨려도
일어서서 그의 뒤를 따를수밖에

작업장엔 기계화가 돼 있지 않고
도입된 창의고안 보이지 않네
오백여건 합리화는 어데를 가고
절약했단 로력 자재 어데 갔는가

지도원은 어이 없어 말을 못하고
직장장님 떨떨 떨며 말못하는데
로동자들 격분하여 부르짖는 말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은룡광산 신 창 현

필요한 기계는 다 만들 수 있다

리 춘 수 그림

왕 들

신 춘

을 자네가 무얼 만들어?
갑 왕 중 왕
을 왕?
갑 아니 여태 왕두 모르나? 《철은 공업의 왕이다!》
을 오, 제철공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아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지 어째 기계는 쑤욱 빼놓구 철만이 공업의 왕인 것처럼 애길 하나?
갑 응 거야 기계두 철에서 나온게거든, 그러구 공업 분야 전반에 걸쳐 철 안쓰이는 데가 어데 있나? 우선 공장을 건설하는 데두 철이요, 주택을 짓는 데두 철, 다리를 가설하구 철도를 부설하는데두 철, 그리구 화차를 만드는 데두 철, 배를 뭇는 데두 철, 각종 기계며 자동차, 뜨락또르, 부르도젤, 엑쓰가와또르, 기중기 할 것 없이 어느 하나 철 아닌게 있나? 심지어 철루다 밥까지 해 먹네
을 아니 이 사람아, 밥이야 쌀루 해먹지 철루 해 먹어?
갑 밥을 어데다 짓나?
을 솥에다! 오 참!
갑 그러니까 단연 공업의 왕은 철이요, 강철은 왕 중 왕이라 그런 말이야
을 그럼 그 철은 어데서 나오나?
갑 광석에서 나오지 어데서 나와?
을 그 광석은 뭘루다 캐내나?
갑 그거야 착암기루 캐내지
을 착암기는 기계가 아닌가?
갑 어?
을 기계루다 파 내구, 기계루 실어다가 기계루 녹여서 기계루 쇠'물을 뽑아 내야 철이 되는 거야!
갑 하긴 그렇지
을 그리구는 그 철은 기계루 뚜드리구, 기계루 짜르구, 기계루 깎아내구, 기계루 뚫구, 기계루 맞춰야만 기차며 뜨락또르가 돼 나오는 거야, 뭐나 아나?
갑 옳아, 그리구 보니 기계두 대왕은 못돼두 소왕은 되겠는 걸?
을 도람프를 하나? 대왕 소왕 하게? 자 보게나 우리 나라를 전기화하는 데두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지? 수리화에두 기계요, 자동화두 기계요, 기계화두 기계요,
갑 기계화야 물론 기계루다 기계화를 하게 마련이지 기계 아닌 걸루 기계화를 할가 원
을 그뿐인가 집 짓는 데두 기계화, 천 짜는 데두 기계화, 농사 짓는 데두 기계화, 통조림이며 하다 못해 김장 담구는 것까지두 기계화요, 지어는 소고기 돼지 고기두 인젠 기계루 만들어 내네
갑 뭐뭐? 소고기 돼지고기두? 한다 한다 하니까 별소리 다 하네
을 소고기나 돼지 고긴 어데서 나나?
갑 소나 돼지에서 나지 어데서 나?
을 그럼 가축들이 뭘 먹나?
갑 거야 씰로스를 먹지 뭘 먹어?
을 그것 보게, 그 씰로쓰를 바로 기계루다 만든단 말이야! 청초 애취기루다 풀을 베구 절단기루다 숭명숭명 썰어서 씰로스를 담궈 놓구는 그걸 먹일 적엔 사료 분마기루다 부드럽게 빻구 혼합기루다 배합을 잘 해서 사료 운반기루 날라다가는 분배기루 척척 노놔 준단 말일세
갑 전부 기계루만 하는구만!
을 그리구 물 주는 건 자동 급수기요, 젖 짜는 건 자동 착유기, 나중엔 소 잔등 긁어 주는 개체 소제기까지 있으니 말할것 있나? 그러니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주동적 역할을 노는 기계가 단연 공업의 왕이라 그런 말일세, 알겠나?
갑 알구 보니 기계두 왕 자격이 되구두 남는구만 그래? 그래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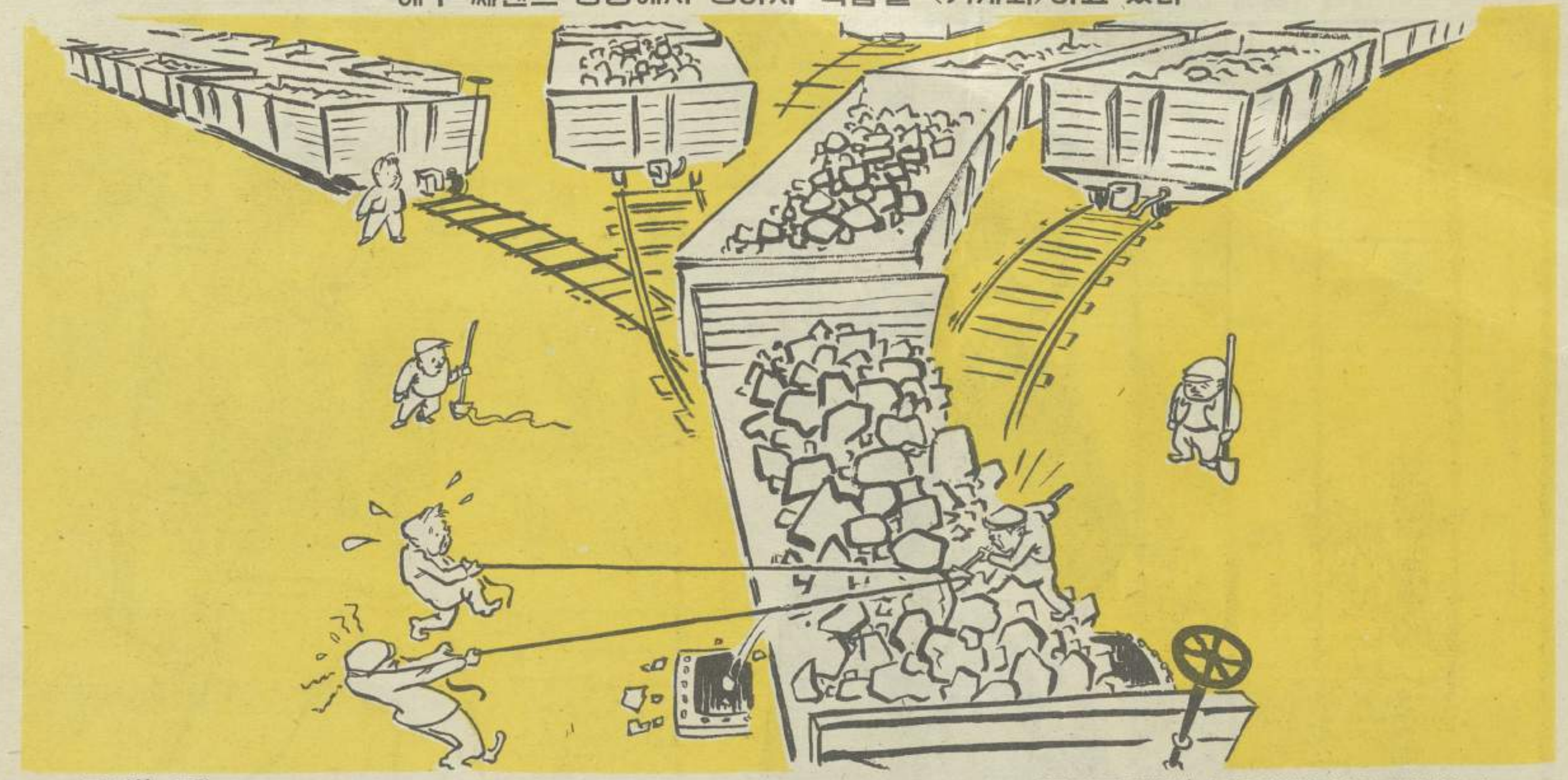
씰로쓰냐? 약이냐?

허 능택 그림

소—내가 씰로쓰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시오?
축산 작업 반장—이것도 허약한 소에게나 주는 것이란다.

함남도 고원군 중평리 중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작년도에 씰로쓰를 적게 준비한데로부터 사료가 부족하여 겨우 허약한 가축에게만 씰로쓰를 주고 있다

해주 쎄멘트 공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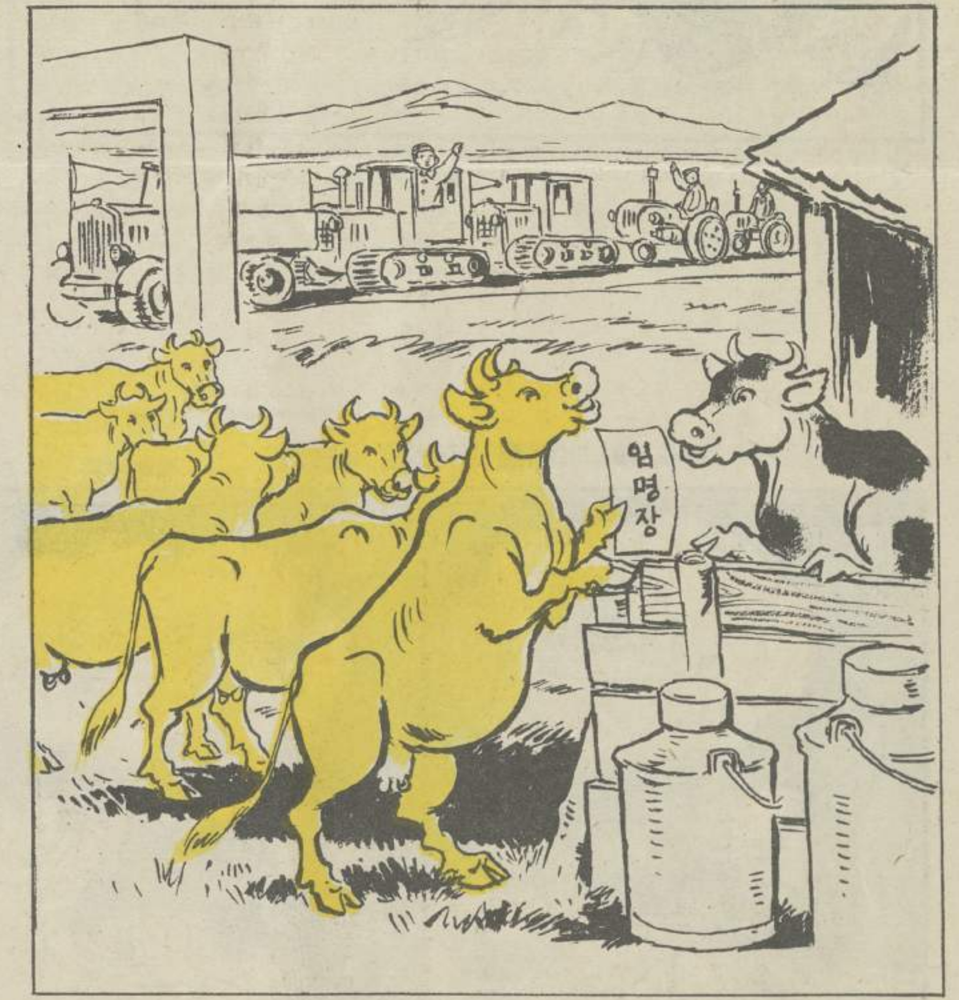
해주 쎄멘트 공장에서는 원석을 하차하는 수하장 시설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하차 작업을 기계화할 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깊을 수록 높은 수확

—이렇게 깊이 갈건 내 생전 처음 본다

—이렇게 많은 수확은 내 생전 처음 본다

일터가 바뀐다



젖소—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소—내 일은 저 기계에게 맡기고 이리로 왔지요

리 영춘 그림

문예 전당을 깨끗이 한다

박 승히 그림

해설과 설복을 모르는 하부 지도

평양시 김 두린 그림

고원 탄광 조 희세 그림

이런 현상은 없는가

평안 남도 박 근성 그림

사무실에서는 먹는 이야기 술'자리에서는 사업 이야기

백 인균 그림

합숙원들의 목소리

평양 제 1 콩크리트 브록크 공장 합숙은 겨울에도 더워서 좋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이라도 이 공장 합숙에서는 언제나 추운 줄을 모른다. 왜 그러냐 하면 브록크 공장에서는 사철 증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건이 좋은 합숙이건만 이 합숙을 좋은 합숙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좀 더 로골적으로 말한다면 들어가기 싫어한다.

지난날

—합숙 운영이 잘 안됩니다.

—식사가 계획적으로 보장 안됩니다.

이처럼 합숙생들의 의견이 들어 올 때면 행정 지도부에서는 사감을 바꾸군 했다. 1년 동안에 사감, 경리원을 5차에 걸쳐 바꾸어 놓음으로써 지도부에서는 합숙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생각하는대로 다만 사감을 바꾸는 것으로 합숙이 잘 운영되여 가지는 않았다.

어느 합숙에서나 있는 것 처럼 이 합숙에도 자치 위원회가 있다. 처음 조직할 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조직하였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겨우 이름만 남아 있을가?

—침구가 부족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요.

—네

—침구가 불결합니다.

—네

—편식이 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해당 지도부에서는 대답은 잘 하는데 해결은 잘 안해 준다. 그러길래 지금에 와서는 자치 위원회에서 제기하나 마나 한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이 합숙 식당에서는 카로리 타산은 그만 두더라도 급식 계획표도 없다. 배추가 흔할 때에는 아침 저녁 배추'국이요, 무우가 흔할 때에는 한동안 무우국이 계속된다.

—경리원이 어데 갔나? 하고 물으면

—아, 경리원 말인가? 경리원이야 무우 사러 갔지— 부식물이 무우로 되여버린 이 합숙에서는 부식물 사러 갔다기보다는 무우 사러 갔다는 편이 더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감이나 경리원이 일을 하느라고 하기는 하는데 늘 손쉽게 한다. 그런데 손쉽게 하려는 건 사감이나 경리원만이 아니다. 물론 신설 공장이라고 하지만 지도 일'군들이 관심만 좀 돌려서 서둘렀다면 부업도 할 수 있었으련만… 부업도 없었고 월동용 채소 저장도 안했다. 그러니 2월 중순까지도 《비'자루가 부족합니다》《세면기가 부족합니다》《옷 걸이가 없습니다》하는 것은 모두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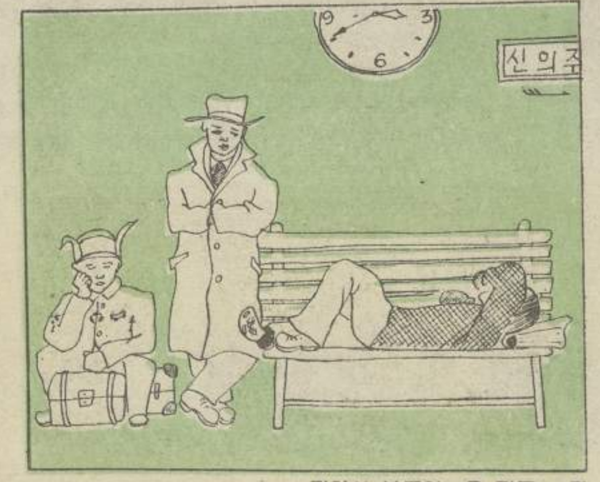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혁명을 하고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해 나가는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야 없지 않을가?

김 상애

산림 관리원이 있을 적엔

남포 유리공장 김 대 권

대합실에서



평양시 북구역 윤 평중 그림

천대 받는 나무

조선 인민군 김 경진 그림

잔디를 밟지 맙시다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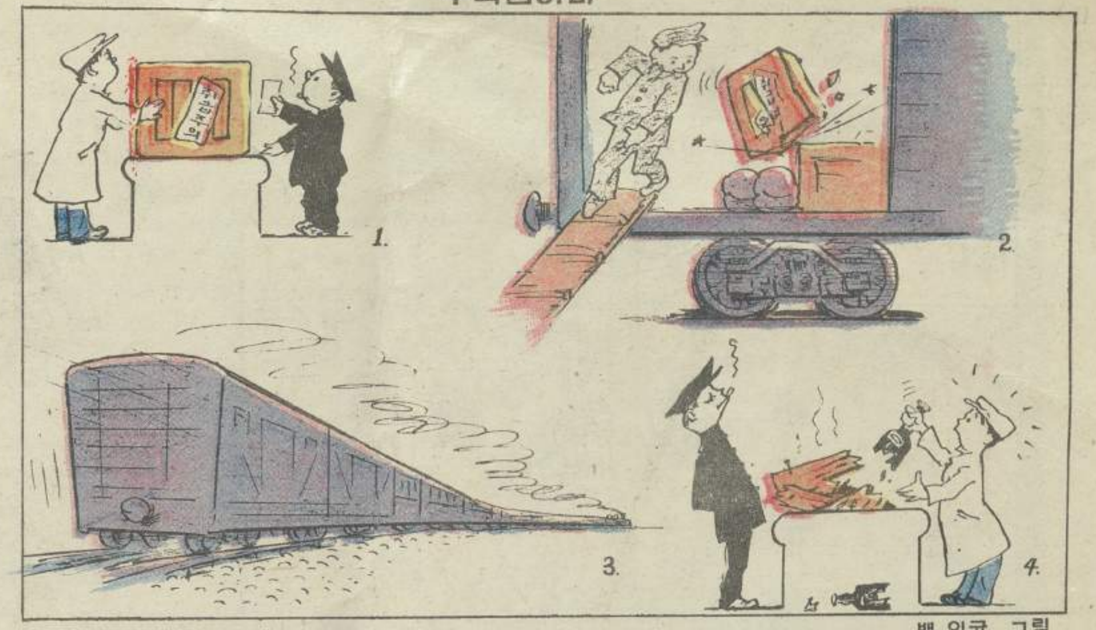
손'짐작 눈'짐작으로

원 광수 그림

자기가 들 집 아니라고 설계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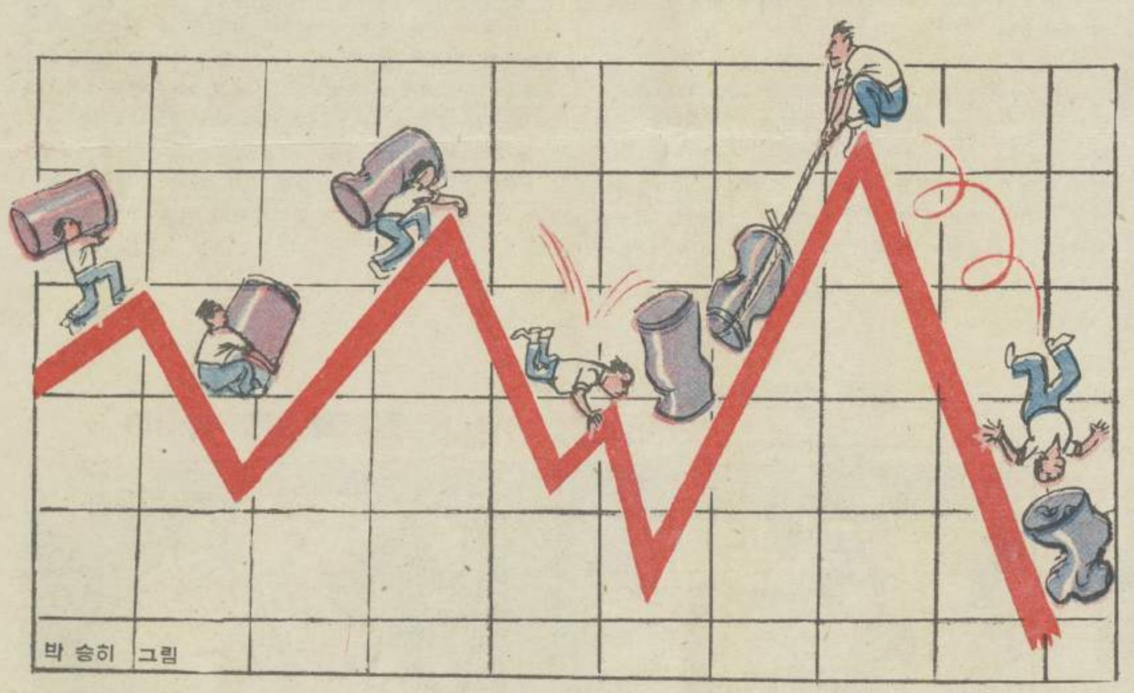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무책임하다



백 인균 그림

생산의 파동성은 질을 저하시킨다



박 승히 그림

성진 제강소에서

△제도와 질서

《우리 제강소가 지난 시기에는 제도와 질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가 하고 토의하던 끝에 제도와 질서가 잘 된다는 기업소에 각 직장의 지도 일'군들과 모범 로동자들로 구성된 견학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견학단이 돌아 온 다음 귀환담이며 간부 회의, 브리가다장 회의 등을 해서 일대 선풍을 일궈 놨습니다. 그래 지금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군 한다.

제강 직장 현장.

가끔 로 앞에서는 로동자들과 열 관리원이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있다.

열 관리원은 광 고온계로 로에서 떠낸 용금을 보고 아직 출강 온도가 안됐다고 하는데도 자기 경험만 믿는 일부 용해공들은 경험으로 봐서 이만 하면 됐다느니 하고.

표준 조작법에는 열 관리원이 광 고온계로 보고 됐다고 승인한 다음에 출강해야 하나 제도가 약한 이 제강소에서는 가끔 용해공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눈'짐작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표준 조작법대로 검사원은 분석실에 가서 련 성분을 분석해 보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 가자고 하는데도 경험만 믿는 일부 용해공들은 눈'짐작으로 보고 이만하면 되니 빨리 환원으로 넘어 가자느니 하고 다투다가 검사원이 지고 눈'짐작으로 판정한 용해공들의 주장대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 간다.

그러나 지배인은 여전히 제도와 질서가 잘 되거니 생각하고 있다.

년말이다. 계획부장이 가져온 생산 통계와 오작품 통계를 본 지배인은 눈이 둥굴해졌다. 4.4분기에도 오작 비률이 강괴에서 6.4%, 스프링 강에서는 18.2%!!

《아니, 왜 이렇게 오작품이 많소?》

지배인은 몹시 의아스런 얼굴로 물었다. 계획부장은 《이걸 보십시요》하고 다른 통계를 내밀었다. 통계를 본 지배인은 의혹의 빛이 사라졌다. 표준 조작법 위반이 12월에도 조강 직장에서 21건, 제강 직장에서 101건이란 엄청난 수'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머리를 싸 쥐였다. 말로만 제도와 질서를 세우라고 웨치고 실지 제도를 세우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현실은 그에게 응당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 기능 제고 사업

성진 제강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기능 전습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조강 직장에서는 직장 기능 학교의 기능 전습 사업을 제 날에 해 본 적이 그리 없다.

원래 직장 지도 일'군들이 기능공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능 전습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회의요, 무슨 총화요, 무슨 작업이요 하고 조직해서는 기능 전습을 하지 못하게 되였는데 그리고도 그 날이 지나가면 그 주일은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 때문에 이 직장의 적지 않은 무기능공이나 신입 로동자들은 기술 기능 수준이 빨리 제고될 리 없었다.

기능 학교 강사는 자기 과정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장 지도부에다 제기하면

《아직 이달 증산 과제를 못해 오늘은 그걸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겠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나서 할려니 기능 전습은 밀릴대로 밀렸다. 강사는 안타까운 나머지 또 직장 지도부에 제기한다.

《기능 전습이 수'해 밀렸는 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젠 한 주일에 두어번씩 해야겠습니다. 그럴려면 직장에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겠습니다》.

《지금 분기 계획을 못했는데 그거나 해 놓고 좀 봅시다》

그러다가 강사가 한달 가량 출장을 가는 바람에 또 그동안 기능 전습을 못했다.

년말이 되였다. 기능 전습 과정안은 절반도 보장하지 못했다. 강사는 안달이 나 직장 지도부에 찾아갔다.

《직장장 동무, 금년 기능 전습 과정안을 45%밖에 못했습니다》

《야단 났구만, 그런데 지금 어디 눈코 뜰 새가 있소, 생산이 중요하지 않소, 우선 년간 국가 과제나 해 놓은 다음에 봅시다. 그래도 안되면 명년도에 봉창을 하면 되지 않소》

이리하여 조강 직장에서는 량적으로는 국가 과제를 달성했으나 제품은 질이 낮고 오작 비률은 제강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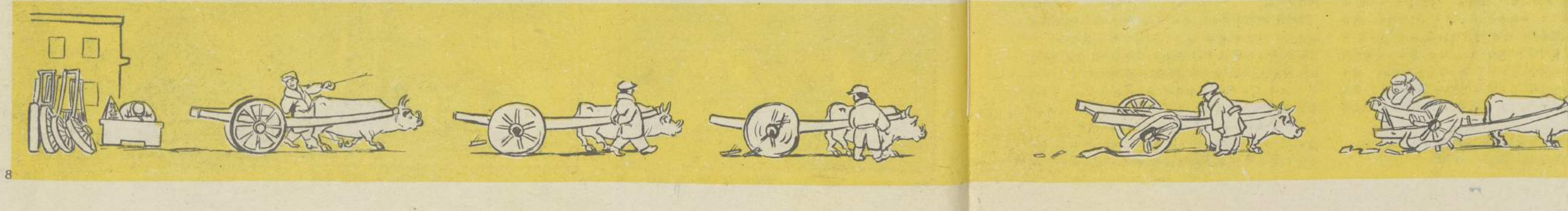
이렇게 오작 비률이 높은 원인을 알아본즉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수다히 위반한 때문이였는 데, 그렇게 된 원인은 제도와 질서가 없은데도 있지만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 제고에 무관심한 결과 일부 기능공들이 기술의 우월성을 리해 못하고 경험과 눈'짐작으로 작업한 결과 로동자들의 기능이 어린 때문이였다.

리 운봉

바뀌였다

리 영춘 그림

아버지—네 옷이 점잖구나
아들—아버지 것이 고와요



홍 종호 그림

평양시 동구역 김 학규 그림

형식적인 《변소 개조》

리 영춘 그림

게으른 끝에《묘책》

흥남 비료 공장 전 남성 그림

《자 진 통》

신 홍순

남조선에서 교장 노릇을 하는 데는 학교 공납금과 잡부금을 잘 받아 들여야 한다.

괴뢰 정부의 방대한 군사 예산으로 하여 학교 운영을 잡부금에 의존하고 있을뿐만아니라 학교를 모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느니만큼 학교 당국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외에 별의별 명목으로 잡부금을 징수한다.

대표적인 몇가지만 들어 보더라도 우선 거액의 입학금, 수업료,사친회비를 위시로 하여 기성회비, 신탄 보충비, 운동 기구 설치비, 실험 기구 시설비, 호국단비, 운동회비, 게다가 교원이 새로 오면 환영비, 갈려 가면 전별금, 결혼하면 축하금, 죽으면 조위금,심지어 문교부의 어느 과장이 출장 왔을 때 생색을 낸 접대비까지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활당하여 거두어 들인다.

돈 있는 집 자식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남조선의 교육 제도인지라 별로 괴이한 사실은 아니나 매달 이와 같은 다액의 잡부금을 징수하는 데는 학교 당국의 골치 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교장은 별의별 간교한 수단과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받아 들이는 데, 벌 세우고, 내여 쫓는 것만으로도 잘 안되니까 나중에는 매일 아침 학교 정문에서 제창 잡부금 령수증을 출입증 대용으로 하여 돈을 못낸 학생은 아여 들여 놓지부터 않는다.

이러구 보니 대부분의 학생이 집으로 도로 울며 쫓겨 가게 되고 몇 안 되는 아이들만이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게 된다.

《돈을 받기 위한 학원이냐? 공부를 시키기 위한 학원이냐?》 하고 학부형들이 사회 여론을 일으키게 되자 학교들에서는 교묘한 방법을 〈창안〉하여 냈는데 그것이 바로 〈자진 납부 운동〉이다.

학교 교실 입구마다 〈자진통〉이라고 쓴 우체통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놓고는 매일 아침 교장이 이 〈자진통〉에 대한 중요 의의를 재삼재사 강조하는 것이다.

《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정부의 보잘 것 없는 교육비만 가지고는 학교 교원들의 월급조차도 제대로 못주고 몇 달치씩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학교 운영 경비를 학생 제군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물론 그 전과 같이 강제 징수 방법을 쓰지 않고 〈자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되었은즉 누구든지 자진해서 돈을 가져다가 〈자진통〉에 넣되 거기에는 반드시 각자의 이름을 밝히란 말이야! 요는 어느 학생 어느 학부형이 교육에 대해 성의가 있느냐? 또 학교를 위하고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니만치 학생 제군은 이것에 각별 류의하여 주기 바라는 바요!》

이름만은 허울 좋게 〈자진〉이지만 실은 강제 이상으로 가혹한 방법이다.

돈을 넣지 못한 학생들은 〈자진 사상〉이 나올 때까지 눈바람 치는 운동장에서 벌을 서야 하며 〈자진성〉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매를 맞고 집으로 쫓겨가야 한다.

학생들은 이 〈자진통〉을 〈자살통〉이라고 부르게 되였고 학교 당국에 대한 불감은 나날이 높아만 갔다.

저녁 때가 되면 교장은 그 〈자진통〉을 거두어 들여서 검토하여 보게 마련인데 하루는 그 통들마다 가뜩가뜩 차 있었다.

《야! 오늘이야 처음 한번 굉장히 많이 넣은가보다! 매일 아침 강조한 보람이 인제야 나는구나!》 하며 교장은 좋아하였다.

교장은 속심으로 〈인제야 한 밑천 생기나 보다〉 하고 은근히 기뻐하며 잠울쇠들을 열어 보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왕청 같은 물건에 그는 악! 하고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공화국 북반부 교육 제도에 대한 삐라들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이번에 인민 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업료를 폐지하여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로 15개의 대학과 5개의 전문 학교가 더 생기며 머지 않아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다는 것, 대학생과 전문 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 겨울 외투, 여름 양복들을 급여한다는 것 등이 밝혀 있었고 한편 리 승만 도당의 반 인민적인 망국적 교육 시책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래도 이름만은 《국회》

오 홍택

괴뢰들의 《국회》를 가리켜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싸움으로 시작하여 싸움으로 끝나는 국회》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심성 있고 점잖게 한 말이다. 좀 더 로골적으로 쓴 남조선 출판물에 의하면 남조선의 괴뢰《국회》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것》이며 《권투 구락부》라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만화가는 길'가에서 《권투 구락부를 찾는 사람을 《국회 의사당》에 안내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 《망나니 국회》의 하는 것마다가 너무도 상식을 벗어나고 또 요긴한 대목에 가서는 주먹질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에 그의 《명성》은 널리 떨쳐져 있다.

과거의 그 모든 것을 구태여 들출 것도 없이 최근의 사실만으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이다.

지난 2월 18일에 이 망나니 패들은 이른바 《제 32회 림시 국회 개원식》이라는 것을 하였다.

여기서 야당패들은 《신국가 보안법》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강도적 방법으로 조작해 낸 당시의 《부의장》이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하게 계속 부의장 행세를 하려는 이상 이런 사람의 참석하에 개원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총퇴장하였다. 이리하여 《개원식》이라는 것은 리 승만의 《자유당》패들 만으로 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런 일은 보통 있는 일이다.

지어 지난 해 12월 24일에는 경찰이 총동원하여 안나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국회 의원》을 앙탈 부리는 강아지 새끼라도 끌어내 듯이 사지를 들어 지하실에다 감금해 버리는 일까지도 하였으니…

헌데 이런 《총퇴장》 연극이 최근에 와서는 매번 거듭되고 있다.

지난번 《국회 회기》 1월 12일에 《31회 개원식》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유당》패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야당패들만으로 해 버렸다. 이때부터 야당패들은 매일 《국회》에 나와 회의를 한다고 앉았으나 《자유당》패들이 출석하지 않아 애꾸진 담배만 태우다가 헛방만 치고 돌아 갔다. 인원이 모자라 《국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려 23일간 이 노릇을 하다가 2월 3일에야 겨우 《회의가 성립》되였으나 첫날부터 싸움판이 벌어져 《의정도 채택 못한채》 보따리를 싸고 말았다.

합동 통신에 의하면 2월 6일과 7일에는 마주 앉은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으르렁대다가 한번은 3분만에 그리고 한번은 7분만에 헤여지고 말았다.

× ×

2월 10일은 더욱 볼만하였다.

《자유당》파 야당이 누가 먼저 발언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로 온 종일 싸우다가 지쳐 버린 《사회자》는 끝내 《나는 사회를 못하겠으니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한마디 하고는 단상에서 내려 버렸다.

닭 쫓던 개 울 쳐다 보기로 《국회 의원》들은 텅 비인 사회석만 쳐다 보고 있었다.

20분이나 경과한 후에 한 《국회 의원》이 팔을 부르 걷고 단상에 뛰여 오르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웨쳤다.

《이게 무슨 꼴이냐, 국회가 이런 싸움만 하는 동안 농촌은 쌀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다》(합동 통신)

그 후의 광경은 중앙 통신을 그대로 인용 한다.

《야당석에서는 박수가 일어났다. 마이크에 전기를 넣어라, 더 계속하라는 함성이 일어났다. 자유당석에서는"경위는 무얼하느냐, 저것을 제지시켜라„는 고함 소리가 울렸다.》

이 망나니 《국회》가 싸움질만 하는 동안 남조선 온 천지는 《배고파 못살겠다》는 아우성으로 꽉 찼으니 말만이라도 통탄의 뜻을 표하면 제법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리라 타산했던 것이다.

여기에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기세에 편승하여 한몫보자는 야당패들은 에라 좋다고 박수를 쳤고 《도적개 제발 저리다》는 격으로 《자유당》은 가슴이 뜨끔해서 경찰을 불렀던 것이다.

× ×

매일 이 판을 벌리다 보니 합동 통신이 쓴 것과 같이 이 《30일 간의 회기를 가진 이번 국회는 의제 채택마저 못하고 욕설과 주먹다짐으로 시종하다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폐회를 보게 되였다.》

그런데 한달이나 싸움질만 하던 《국회》의 《폐원식》에는 《개원식》과는 반대로 야당패들이 총퇴장하고 《자유당》패들만으로 끝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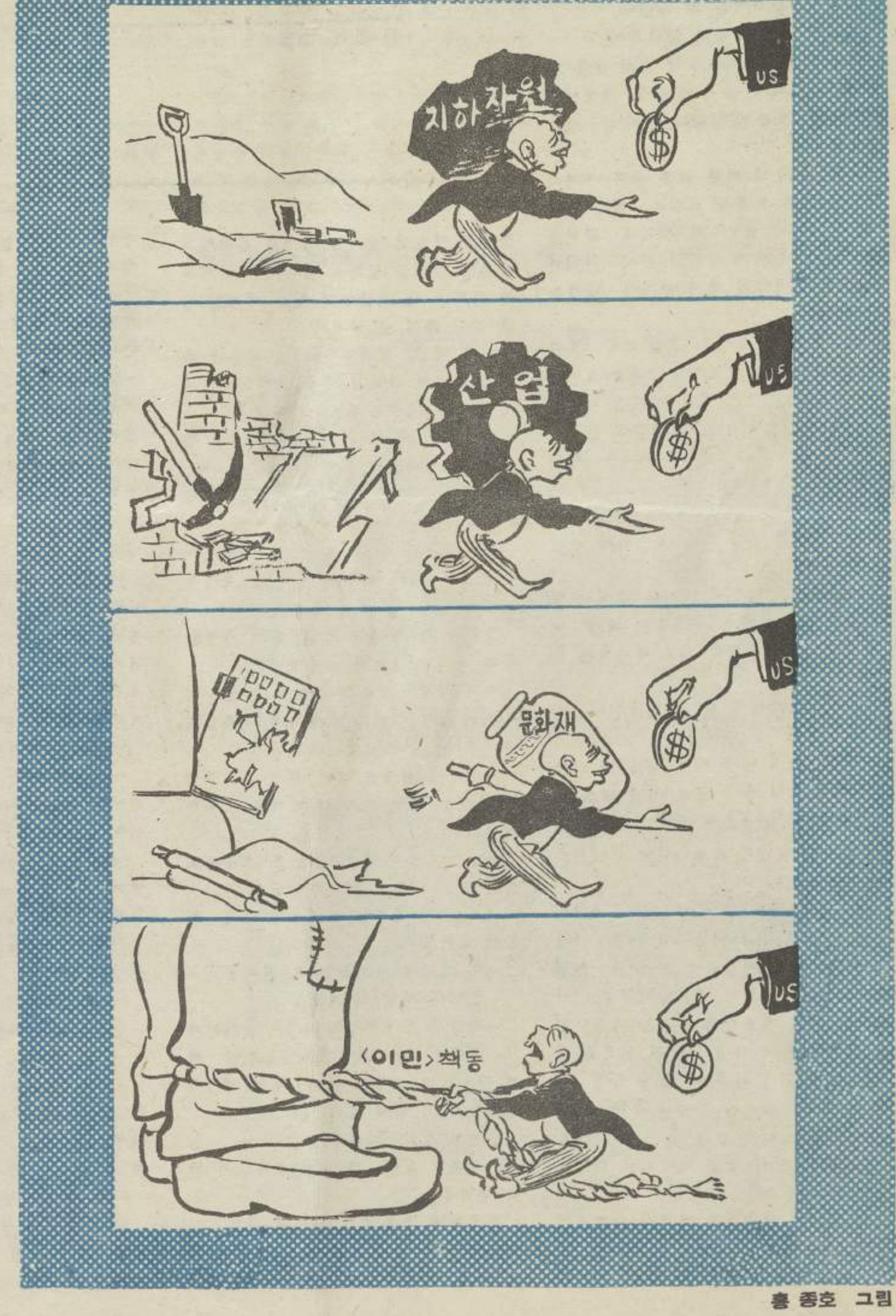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국회 의장》이란 작자는 몸이 아프다고 집에 누워서 《성명》을 발표하기를 《참으로 유감된 일이며 이러한 사실은…전무 후무한 일로서 슬픈 사실이다》라고 뇌까렸다.

그들로서 생각할 때 《참으로 유감된 일》이며 《슬픈 사실》이 틀림 없으나 《전무 후무한 일》(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일은 전에도 종종 있었거니와 앞으로는 더 빈번히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 《슬픈 국회》의 다음번 회기인 이번《국회 개원식》이 《자유당》패만으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더 자주 있을 징조가 아닌가?!

징조에 대하여 더 말한다면 망해 가는 때는 집안 싸움이 잦은 법이다.

이렇게 되니 그들에게는 망할 징조 밖에 없다.

팔아 먹다 못해…



홍 종호 그림

「시민 대회」

류 계 환

너구리처럼 음침한「도 경찰국장」의 눈알이 번뜩이더니 좌중의 인물들을 한 바퀴 훑어 본다.

대구 역 부근에 있는 경북도 경찰국이다. 방안에 국장 이하 경찰국 간부들, 시내 경찰서장들, 그리고「대한 로총」을 비롯한 어용 단체 도 지부 간부들이 모여 앉아 쑥덕 공론들을 하고 있다.

—밀'가루 배급이나 준다면 몰라두 잘 동원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는 그 녀석들이 자진해서 우리 일에 협력했소? 아무 때나 메일반이지, 울러메는 게 상수야

—그게 글쎄 수월치 않아서…

대통령 3선 출마 요청 민의 운동 때두 하다 안돼서 종내 영업패 떼겠다구 위협해서 겨우 동원한게 우차'군 정도였는데…

—그 때 우리 대한 로총 산하 우마차 조합에서 큰 역할을 했습죠, 헤헤

—말 마우, 달구지만 시위에 동원했다구 이건 민의가 아니구 우의 마의라구 신문이 떠들어 대서 창피만 당했는데…

—여보 달성 서장! 유엔 가입 요청 국민 운동 때는 서명장을 트럭으로 나르지 않았소, 그런 식으루 하면 돼

—옳은 말씀입니다. 도장들을 안적어 거지반 백지 룽떼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쓸데 없는 소릴 여기서…어쨌든 래일 동원은 잘 해야겠소, 잘 해야 우리 도가 성적이 오를게 아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후에 말썽이 심해서… 게다가 시민들이 피가 여간 났어야지요. 요리 조리 빠지기만 하구…

—본때를 보여야 돼, 안나오는 놈은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

이튿날 아침 대구 역전 광장에 마련한「재일 한인 북송 반대 시민 대회」에 사람들을 끌어 내고자 대구 시내의 모든 정사복 경찰과 테로단원들이 팔방으로 파견되였다.

대구시 주변에 사는 김 창봉 농민의 집에는 이날 즉 1959년 2월 19일 아침 7~8명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 와 있었다. 그의 딸 순이의 잔치날이였다. 방안에는 인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신부와 옥색 바지에 무명 버선을 신은 신랑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있고 마당에서는 가마니 우에 로인들이 술상을 받고 있다.

—빚값에 보리 밭을 떼우더니 이 댁도 말이 아닝갑다.

한 로인이 입수염을 가르며 탁배기에 절반 남은 막걸리를 들이킨 후 싸리 저'가락으로 접시 전에 말라 붙은 새우젓 꽁지를 집으며 술상에 반영된 잔치집의 옹색한 살림을 탄하고 있다. 탁배기는 세 차례도 못 돌았는데 벌써 마실것 집을 것이 동이 난 것이다.

—말 마소, 팔며둔 산채로 겨우내 량식 보태면서 그래도 탁주 고아 놓고 잔치 차린게 용수팡께로, 그렇잖나?

—아따, 와 아니기로, 굶는 판에 탁주 놓고 잔치하니 용치 않겠노 말이다.

—이집 로친네 아까 일본 징용 가 죽은 큰 아들 생각하고 울데요

—보소, 참 일본 가 있던 사람들이 이북으로 간대. 일본 관청서도 보내주겠다칸대.

그러자 한 로인이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 보고 말소리를 낮추더니

—거 참말잉기요? 그럼 해방 전에 징용으로 일본 건너간 삼돌이도 가겠네요, 거 참 좋아 하겠네,

—이북은 참말로 살기 좋대, 지주놈배들 없는 것만 해도 어딩기로, 우짜 않가겠노

—삼돌이가 부럽네요. 우린 그렇게도 못하고… 나 먹은 게, 한이랑께…

이때 국민 반장을 앞세우고 순경 한 놈이 들어왔다.

—왜 대낮에 여기들 모여 있어?

—순이네 잔치날이래요.

—아앙? 잔치? 누가 오늘 잔치하라구 그랬어? 무허가 집회야! 빨리 역전 광장으로 모두들 나가! 오늘 허가한 집회는 거기 밖에 없어

—게서 뭘하는데요?

—물을거 없어, 가 보면 알아, 자 빨리 빨리!

순경놈은 구두'발로 방안에 뛰여 들어가서 상을 받아 놓은 신랑 신부를 끌어 냈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우격다짐으로 몰아 세우고는 그 길로 역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광장에는「재일 한인 북송 반대 시민 대회」라는 해괴한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데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시민들이 20~30명씩 순경들에게 몰려나왔다. 그중에는 대렬에서 새여나 뒤'골목으로 빠지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뒤따라오던 순경들이 고함을 치면 어느새 뛰여 오는지 팔에 흰 완장을 두른 괴한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대렬 속으로 밀어넣군 한다.

이런 식으로 몇백 명의 군중들이 광장에 모였다. 얼마 후에「자유당」경북도당 위원장이라는 자가 연단에 나타나 뭐라고 종알거리는데 간간히「일전도불사」「실력 행사」라는 말마디 만은 또렷또렷 들려 온다.

—이제 뭐락카노?

—일본에 있는 동포를 이북에 보내면 한바탕 해보겠다칸대요, 붓잡아 오겠데나요

—체! 대려오면 우짤레노, 우리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살기 존데루 가겠다카는데 가만 놔두기나 하지

—놔두면 즈그들 체면이 깎이니깐 하는 소리랑께

군중들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소곤소곤 왔다 간다.

시꺼먼 안경을 끼고 완장을 두른 자가 갑자기 뭐라고 지꺼리더니 주먹을 휘두른다. 무슨 구호를 웨치는 모양이다.

—저 자가 지랄하네요

한 젊은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쿡 찌른다. 모두 꺼먼 안경을 힐끔 쳐다 보았으나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 따라 하지 않아?

시꺼먼 안경이 을러메자 사람들은 그 옆을 슬금슬금 피해 갔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위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10만 시민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행진합시다.

맨 앞에서 시청 관리가 소리를 친다.

—체! 모두 해서 2백명두 안되는데 10만이라는군

순이네 일가와 그의 남편은 결혼식을 유린 당한 게 생각하면 할 수록 부아가 치밀었다.

—남의 결혼식까지 무허가 집회라고 구두'발로 짓밟으면서 사람들을 이런 치사스러운 행사에 끌어내? 개자식들…

앞장 선 패는 멋없이 북을 두드리고 뒤따르는 완장을 두른 패거리들은 연신 무슨 구호들을 부르면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누구도 호응해 나서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누가 갑자기 웨쳤다.

—더럽다! 거더치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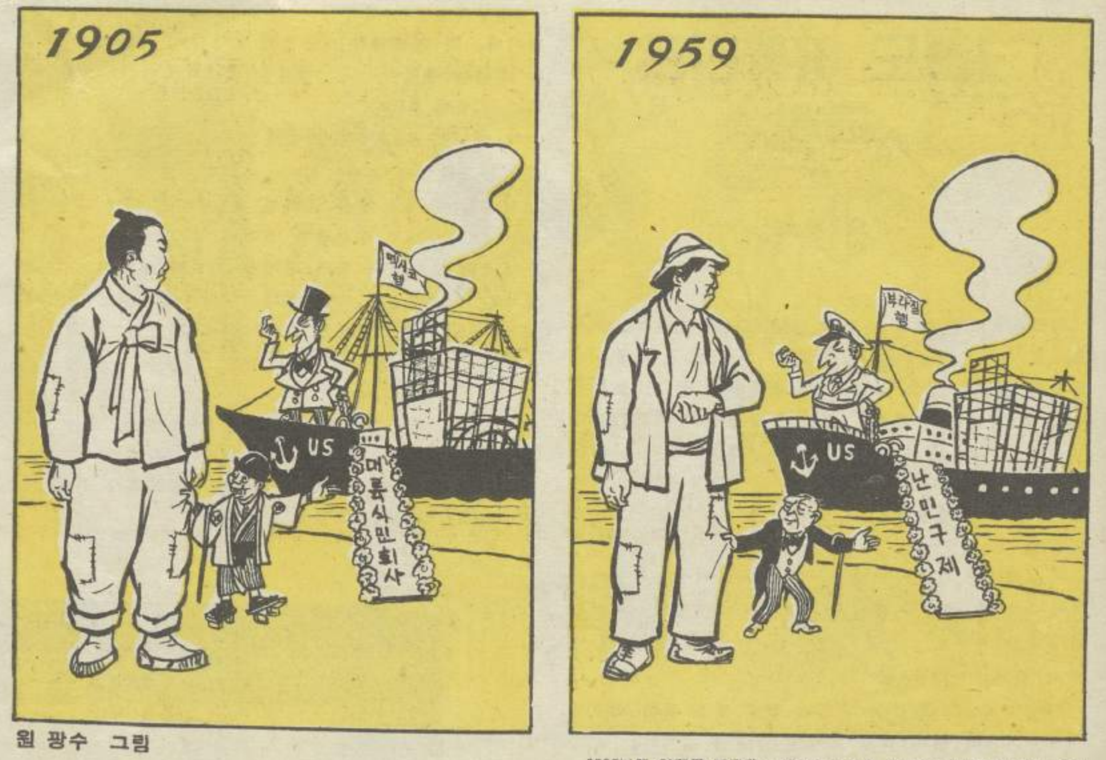
일순 거리에는 수백매의 삐라가 휘날렸다. 대렬은 수라장이 되였다.

순경놈들이 당황하여 고함을 지르며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공포까지 쏘아댔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다. 군중들은 저마다 소리를 치면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시민 대회는 이렇게 끝장을 냈다.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환을 막아 보려고 리 승만 도당이 조작한 백빠진 소동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음모의 조작자들은 그것으로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 한 번 들어 냈을 뿐이다.

그 방법 그대로



원 광수 그림

1905년에 일제를 중개자로 내세우고 조선 인민을 기만하여 노예 장사를 한 미제는 오늘날 또다시 리승만 도배를 내세워서 남조선 인민을《이민》이란 명목으로 노예 장사의 대상으로 하려 하고 있다.

리승만의《이민》흉책의 내용

리 춘 수 그림

고 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동래 온천 앞에 택시 한 대가 멎더니 그 안에서 경찰서장 박 춘구가 육중한 몸을 비출거리며 나왔다.

《나오리! 어서 오십시오》

《나오리 이런 날씨에 어쩐 된 행차이시옵니까?》

그가 사무실 안에 나타나자 장다란 인사들이 앞을 다투었다.

《목탕 하나 내!》

게트림을 하며 내뱉는 박 춘구의 말에 온천 주인은 가슴이 섬찍 했다.

《나뤗님, 용서하십시오, 목탕은 지금 수리 중이…》

《제깍 고쳐서 물을 대!》

《바닥을 전부 들어 놔서》

온천 주인은 사정을 하였다.

박 춘구는 할 수 없이 휭하니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대중탕에 들어갔다.

물이 어쩌나 뜨거웠던지 이마'살을 찌프리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확 튀는 바람에

《에크 뜨거워 이게 어느 놈이야》하며 휙 돌아서 보았다. 고슴도치처럼 털을 빳빳하게 기른 사나이가 바로 등 뒤에서 퍼부은 물이 튄 것이다.

《임마! 누깔은 뭐 하자는게냐?》

그러나 사나이는 노기 등등한 박 춘구의 얼굴을 힐끔 쳐다 보고는 픽 웃으며 하는 말이

《누가 맹꽁이처럼 바싹 다가 앉으라더냐? 싱거운 놈》

박 춘구는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리였다. 누구에게 인사 한 마디 할 줄 모르면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혹독한 모욕이였기 때문이다.

《임마, 너 뭐 해 먹는 놈인데 사람도 볼줄 몰라?》

《별 자식을 다 보겠네》

사나이의 이 대답에 더 한층 노기가 오른 박 춘구는 그의 아래우를 훑어 보며

《이것 좀 보게?? 고관도 몰라 보는 괘씸한 녀석… 당장 나가자! 뜽뜽이 맛을 보여 줄테니》

박 춘구는 창문이 울리도록 고함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사나이는

《돼지 같은 놈아, 고긴 왜 고아? 나가 보잣구나》

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태연하게 웃기까지 한다.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박 춘구는

《내가 알몸으로 들어서니까 허줄한가봐》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탈의실로 먼저 나와 대충대충 경관복을 주어 입고 엉덩이의 총집이 잘 보이도록 불석하니 나오게 차고 현관으로 나왔다. 사내놈이 경관복을 입은 자기를 보고 벌벌 떨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는다.

(이놈이 도망치지나 않았나?)하고 탈의실 문을 열고 드려다 본 박 춘구는 눈거풀이 뒤집혔다. 사나이는 제법 미끈한 헌병복을 입고 서슬이 퉁퉁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는가! 박 춘구는 반사적으로 문을 쾅 닫았다.

그런데 어느새 보았는지

《이놈아, 어델 도망쳐?》

하며 사나이가 다우쳐 나온다. 헌병도 보통이 아니다. 금테 어깨 박죽에 큼직한 별을 단 장교다. 박 춘구는 허리를 굽히며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하십시요 몰라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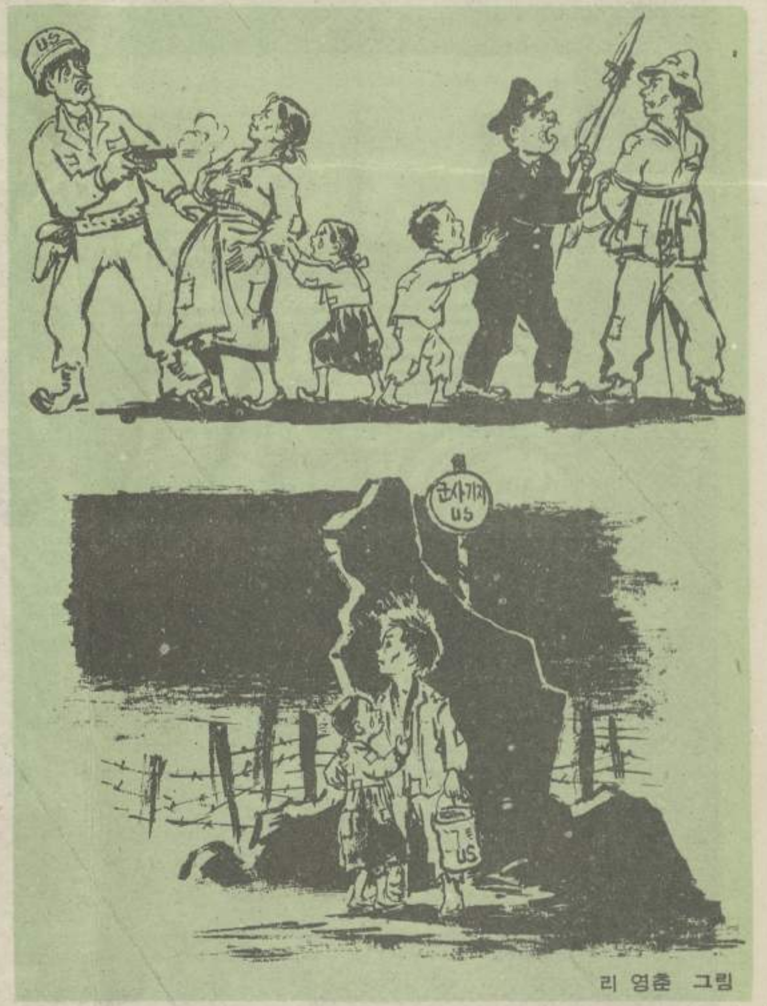
사나이는 턱을 제끼며 게트림을 툭는다.

옹진군 옹진읍 정 영삼

공장은 줄고 실업자는 늘어간다

리 영춘 그림

부모를 누가 뺏어 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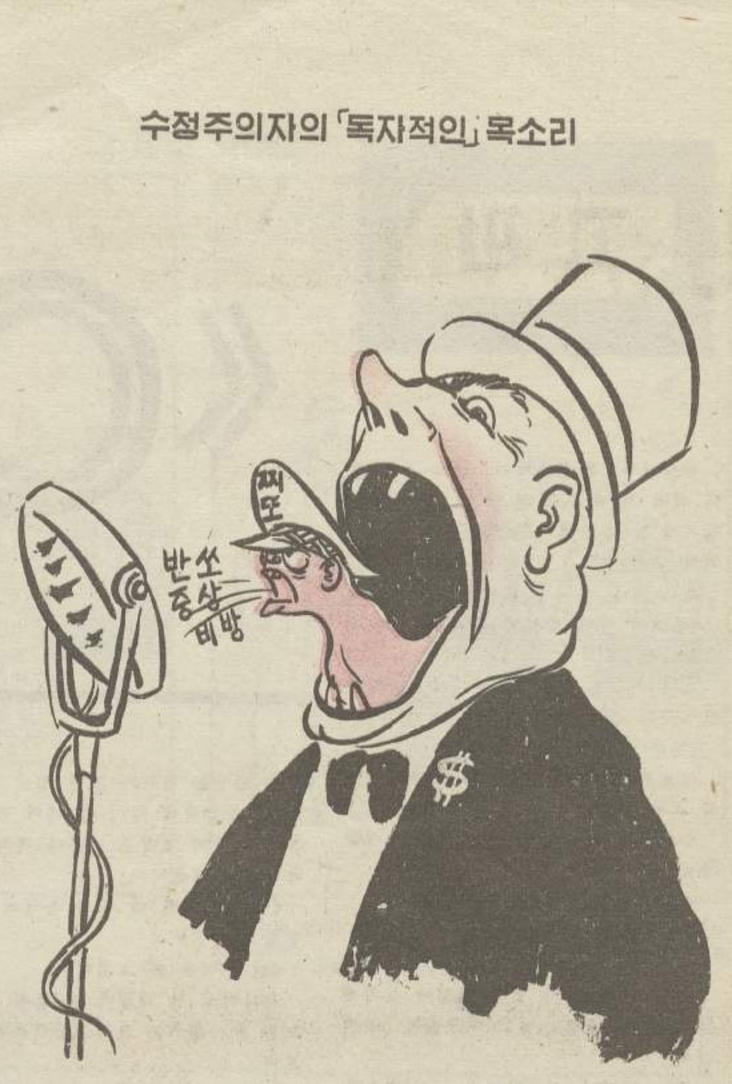


리 영춘 그림

짓밟히고 털리는 남조선 농촌

백 인균 그림

수정주의자의 「독자적인」 목소리



박 승히 그림

일본 고—베시 조선인 중학교 학생 조 량규 작

한 좌담회에서

로 철

좌담회는 왁자 지껄이는 소음 속에 막을 열었다.

먼저 주최자인 뉴욕시 만하탄 지구 재판소 소장 하론이 입을 열었다.

《예, 이미 보내 드린 초대장에도 씌여 있는바와 같이 오늘 존경하는 미성년 보호자 대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근래 특히 극심하여 가는 미성년 범죄 사건을 미연 방지할 방도를 강구하자는 것인데, 그 망할 리프맨인지 짧맨인지 하는 신문 기자 녀석이 말썽을 이르키지만 않았던들…》

그 말썽'군이가 어데서 조사해 냈는지 누구도, 심지어 하론도 모르고 있던 《번영하는 만하탄 거리의 번영하는 미성년 범죄 통계표》라는 그야 말로 무시무시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이처럼 신사 숙녀 제씨들의 왕림을 바라게 되였다는 것이 개회사의 요지였다.

비대하기가 온몸이 비계 덩어리 같은 《20세기 폭쓰》 영화 회사 뉴욕 지사장 하리맨이 발언하였다.

《신사 숙녀 제씨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연구 결과를 말하려 하오. 열세살 나는 우리 집 쟈크가 권총으로 다섯명의 늙은이를 쏜 것은 사실이요. 그리고 이건 물론 범죄겠지요. 그러나 이 범죄에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 아메리카 아동들의 천진 란만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요, 어데 우둔한 애가 그런 대사를 할 념인들 낼 수 있겠소? 둘째, 이것은 우리 쟈크의 생리적 결함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애는 천성이 색맹이여서 늙은이들을 흑인들인 줄 알고 쏜 것이요. 세째, 이것은 우리의 군수 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한데 기인한 것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권총이 다 뭐요, 기껏해서 목총, 단도 따위를 가지고 싸움 놀음을 했지…

리프맨은 아동들의 범죄 건수 격증이 우리 회사의 수 많은 깽그 영화가 가져다 준 후과라고 썼는데 이것은 비 론리적인 주장이요! 그와 반대로 나는 깽그 영화가 부족해서 그런 범죄가 늘어 간다고 보고 있소. 생각하여 보시오, 만일 미국의 전체 미성년들이 모두 깽그 영화를 보는데만 온 종일 다 바치게 된다면 그들이 범죄를 일으킬 시간적 여유도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옳습니다! 아, 옳구말구요!》

하고 파파 늙은 얼굴에 요란하게 화장을 한 아이렌드 유곽원 원장 애리쓰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 집 마긴도—오, 주여! 그애게 복 많이 주소서!—열세살 때 사람을 하나 죽였고, 요 며칠 전에는 어느한 골목에서 로친네 하나를 강간했는데 이 범죄에도 그 불가항력적 요인이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나는 우리 만하탄 지구의 전기 시설이 불비한 탓으로 골목 골목이 몹시 어둡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 늙어 빠진 로친네까지 어여쁜 아가씨로 뵈는 판이니까요! 둘째로 이 범죄는 우리 아메리카 아동들의 발육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데 원인이 있지요. 인류는 진화한다고 왜 그 뭐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우리네와 같은 영업을 장려해서 미성년들이 골목을 찾아 다니지 않아도 좋도록 조건을 지어 주어야지요, 네.》

《나는 이상 두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찬성하오》

하고 얼굴이 두꺼비같이 생긴 《원자탄》 도박장 지배인 헨리가 한 옆에서 일어 섰다.

《우리 애 비바가 나이 열한살에 은행을 습격하고 돈을 몽땅 가지고 나온 것도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째로는 우리 나라에 화폐가 너무 많다는 것, 둘째로는 우리 나라 미성년 아동들의 기술 수준이 제고되였다는 것, 세째로는 우리 나라에 아동들을 위한 오락 장소가 너무 적다는 것, 때문에 나는 반드시 도박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네 아홉살 나는 나크가…》

《우리의 귀여운 살리가…》

하고 좌담회 참가자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 섰고 빠짐 없이 《불가항력적 요인》을 렬거했고 반드시 《시정 대책》을 제기하였다.

《보매 다들 발언하신 모양입니다》

하고 재판소장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참 오늘 좌담회는 몹시 유쾌하고 성과 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사 숙녀 제씨들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 아메리카 미성년들의 범죄에는 반드시 불가항력적 요인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 집 톰이라는 애의 례만 들어 봐도…아니, 이건 이 다음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렇듯 뉴욕, 와싱톤, 로스안젤스, 시카고 기타 모든 도시들에서 일어 나는 범죄 사건들을 보면 나는 미성년들의 그 천진란만성, 용감성, 총명성, 높은 기술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재능을 주신 주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의견 대로 우리는 깽그 영화, 유곽, 도박장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아메리카 아동들이 그 우수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재판소장은 만족한듯이 길다란 연설을 했다.

—《랭전》에 부채질 말고 당신의 머리나 식히는 편이 나을게요…

홍 종호 그림

편집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173
발행 1959. 3. 22

값 50전

재일 동포를 맞아 들일 만단의 준비는 다 돼 있다

허 능택 그림